문화도시 영월
YEONGWOL CULTURAL CITY

영월, 100년 산업유산의 가치와 활용

출판기념 포럼

『영월, 광업 100년의 산업유산』『탄광촌의 노래』 출판기념회

주최 영월문화관광재단
Yeongwol Culture & Tourism Foundation

2026. 10. 30.

영월통합관광센터 2층(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245-9)

초대합니다

영월,
100년 산업유산의
가치와 활용
출판기념 포럼

1935년 영월광업소의 개광과 정양리 화력발전소의
건설을 시작으로 영월의 석탄산업은 대한민국 산업화의
한 축을 담당했습니다.

광산을 따라 마을이 생겨났고, 그곳에는 광부들의 노동과 삶,
탄광촌의 문화와 공동체가 함께 자리했습니다.

탄광이 문을 닫은 뒤 많은 흔적이 사라졌지만
문화도시 영월은 흩어진 기억과 기록을 모아
석탄산업의 역사를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.

'석탄광산鑛山에서 문화광산光山으로.'

그 기록을 담은 『영월, 광업 100년의 산업유산』과
『탄광촌의 노래』를 세상에 내놓습니다.
영월 광산의 기억을 나누고 그 기록이 새로운 유산으로
이어지는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**심 오 섭**

시간
2026. 10. 30.(금)
오후 1시 30분
※ 오후 1시부터 식전 공연이
예정되어 있습니다.

장소
영월통합관광센터 2층
(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영월읍 방절리 245-9)

문의
T. 033-375-6367

